국어[한문 포함]

<총 평>

유형 / 연도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20년	5	9	4	2
2019년	5	9	4	2

2020 지방직 7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시험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2019년 시험과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국가직 시험과 마찬가지로 비문학/독해 유형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시험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우 수험 초기부터 문법/규범 이론 공부와 더불어 비문학/독해 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해 문제의 난도는 추론 문제가 대다수였던 국가직 7급 시험에 비해 중간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문법/규범의 경우 항상 출제되는 '용언의 활용형', '음운 현상'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 등 기존의 출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성실히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문학/독해의 경우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와 '글의 전개순서 파악하기' 등이 출제되었으며, 문학은 현대 시과 소설, 고전 운문 및 산문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어휘/한자는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와 한자 성어 총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형태론, 의미론, 한글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문제와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추론하기 등)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시간 조절도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문제당 2분 정도로 풀고, 숙달되면 1분 이내로 풀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 문학의 경우 매일 2~3문제씩 풀고 각 문제에 인용된 작품에 대한 내용을 교재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계속해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듯이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15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8.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

문 1. 밑줄 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① 그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② 위험물 주위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③ 이 광고에 대한 컨셉트를 논의했다.

④ 인터넷을 통해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외래어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symposium'은 '심포지엄'으로 적습니다. 심포지움(X)
② [X] barricade의 올바른 표기는 '바리케이드'가 맞습니다. '바리케이트'는 틀린 표기입니다.
③ [X] '콘셉트(concept)'가 옳은 표기이며 발음 [kánsept]를 고려하여 적은 것입니다. '컨셉' 또는 '컨셉트'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X] 'contents'는 '콘텐츠'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문 2. 밑줄 친 활용형 중 옳은 것은?

① 식은 국을 따뜻하게 데서 먹었다.

② 아이가 소란을 펴서 정신이 없다.

③ 어린이가 한시를 줄줄 왜서 놀랐다.

④ 나는 뜬눈으로 밤을 새서 너무 피곤하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의해야 할 용언의 활용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X] '식었거나 찬 것을 덥게 하다.'를 뜻하는 동사는 '데우다'입니다. '데우다'와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에는 '데워서'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뜻인 동사 '데다'가 활용하면 '데서'가 됩니다.
② [X]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다'를 뜻하는 동사 '피우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에는 '피워서'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접히거나 개킨 것을 젖히어 벌리다.'의 뜻인 동사 '펴다'가 활용하면 '펴서'가 됩니다.
③ [O] '글이나 말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하다.'의 뜻인 동사는 '외우다'이며 그 준말은 '외다'입니다. '외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에는 '외어서'로 활용하며, 줄여서 '왜서'로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우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에는 '외워서'로 활용합니다.
④ [X]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의 뜻인 동사는 '새우다'입니다. '새우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에는 '새워서'와 같이 활용합니다. 타동사이므로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날이 밝아 오다.'의 뜻인 동사 '새다'를 활용하면 '새서'가 됩니다. 자동사이므로 목적어 없이 '어느덧 날이 새는지 창문이 뿌옇게 밝아 온다.'와 같이 씁니다.

문 3. ㉠ ~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 이에 따라 각급 학교 교재에 한자는 괄호 안에 넣는 조치를 취했다.
> ㉡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장 고심했던 일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 ㉢ 한글학회의 『큰사전』에서는 모든 단어의 표제어는 한글로 적었고 괄호 속에 한자, 로마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였다.
> ㉣ 이로 인해 1930년대 이후에 우리 어문 연구가들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③ [O] 제시문은 1900년대 이후로 다른 문자를 지양하고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지는 ㉡과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 ㉣ 중에 ㉡은 한자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한글로만 문자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향에 따라 추진된 일들을 가리키는 ㉣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어서 ㉡과 ㉢ 중에서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 따라 ㉡에서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자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심한 이후에 ㉢과 같이 괄호 안에 한자 등 다른 문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한 결과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학교 교재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③ ㉣ - ㉡ - ㉢ - ㉠이 옳습니다.

문 4. ㉠,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 ○ ㉠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쳤다.
> ○ 그의 실력은 장인의 실력에 ㉡ 비견될 만하다.

	㉠	㉡
①	間髮	批腑
②	簡拔	比房
③	間髮	比肩
④	簡拔	批腑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기에 주의해야 할 한자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③ [O] ㉠ 間髮(간발: 사이 간, 터럭 발) 아주 잠시 또는 아주 적음을 이르는 말.
㉡ 比肩(비견: 견줄 비, 어깨 견) 서로 비슷한 위치에서 견줌. 또는 견주어짐.
※ 簡拔(간발: 대쪽 간, 뺄 발) 여러 사람 가운데 골라 뽑음.
批 칠 비, 腑 장부 부, 房 방 방

문 5.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노래한 것은?

> 珠簾을 고텨 것고 玉階를 다시 쓸며
> 啓明星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 白蓮花 ᄒᆞᆫ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

① 구룸 빗치 조타 ᄒᆞ나 검기를 ᄌᆞ로 ᄒᆞᆫ다
ᄇᆞ람 소릐 ᄆᆞᆰ다 ᄒᆞ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조코도 그츨 뉘 업기는 믈뿐인가 ᄒᆞ노라
② 고즌 므스 일로 퓌며셔 쉬이 디고
플은 어이ᄒᆞ야 프르ᄂᆞᆫ ᄃᆞᆺ 누르ᄂᆞ니
아마도 변티 아닐ᄉᆞᆫ 바회뿐인가 ᄒᆞ노라
③ 나모도 아닌 거시 플도 아닌 거시
곳기ᄂᆞᆫ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ᄂᆞᆫ다
뎌러코 四時예 프르니 그를 됴하ᄒᆞ노라
④ 쟈근 거시 노피 떠서 萬物을 다 비취니
밤듕의 光明이 너만ᄒᆞ니 또 잇ᄂᆞ냐
보고도 말 아니 ᄒᆞ니 내 벋인가 ᄒᆞ노라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가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관동별곡」은 조선 선조 때에 송강 정철이 지은 기행 가사입니다. 작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관동 팔경을 돌아보면서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을 읊은 것으로, ≪송강가사≫에 그 내용이 전합니다. 제시된 부분에서 '백년화'는 '명월(달)'을 의미합니다. 선지는 모두 윤선도의 <오우가>입니다. <오우가>는 조선 인조 때에 윤선도가 지은 연시조로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을 벗에 비유하여 노래한 것으로, 서장(序章)을 포함하여 모두 6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유고≫ 가운데 <산중신곡>에 실려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珠簾(주렴)을 고텨 것고, 玉階(옥계)를 다시 쓸며 啓明星(계명성) 돗도록 곳초 안자 ᄇᆞ라보니 白蓮花(빅년화) ᄒᆞᆫ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구슬로 만든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 층계를 다시 쓸며 샛별이 돋아나도록 꼿꼿이 앉아서 명월을 바라보니 백년화(연꽃)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는가

① [X] 윤선도의 <오우가>로 '물'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 구름의 빛깔이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한다.
> 바람 소리가 맑게 들려 좋기는 하나, 그칠 때가 많도다.
> 깨끗하고도 끊어질 적이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② [X] 윤선도의 <오우가>로 '바위'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곧 져 버리고
>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른 빛을 띠는가?
>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③ [X] 윤선도의 <오우가>로 '대나무'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 곧게 자라기는 누가 그리 시켰으며 또 속은 어이하여 비어 있는가?
> 저리하고도 네 계절에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④ [O] 윤선도의 <오우가>로 '달'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광명(밝은 것)', '너', '내 벗'은 모두 '달'을 의미합니다.

>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 밤중에 밝은 것이 너만 한 것 또 있느냐
>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문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생산량이나 소득처럼 겉보기에 가장 간단할 것 같은 경제학적 개념도 이끌어 내는 데 각종 어려움이 따른다. 거기에 수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생산량 통계에 가사 노동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한 예이다. 숫자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식량, 주거, 의료 서비스 등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 상태인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
>
> 또 구매력, 노동 시간,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비금전적인 요인, 비합리적인 소비 행위, 위치재 등이 초래하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행복측정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연구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그에 대해 부여하는 우리의 관념과 욕망, 선호의 지점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요인 등 복잡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행복측정 연구와 같은 영역은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
> 물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①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있다.
②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
③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④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2문단의 '행복은 그 자체로 측정이 어렵다는 점과 다양한 선호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 때문이다.'를 통해 행복측정 연구에서 측정의 어려움은 선호의 문제로 보완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1문단의 '생산량이나 소득 통계가 생활수준을 정확히 나타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가난한 나라보다 ~ 부유한 나라들은 더욱 그렇다'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나라에서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2문단의 '행복은 가치의 영역으로서 ~ 그 대상을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를 통해 가치 판단은 측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지만, 가치 판단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학적 개념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④ [X] 3문단의 '경제학에서 숫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를 통해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실제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 7. 밑줄 친 한자어를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부의(附議)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시에서는 그 안건을 토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②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도(明渡)하라고 지시했다.
→ 당국은 불법 점유 토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③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징구(徵求)를 결정했다.
→ 우리 조합은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④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산입(算入)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 이 기업은 상여금을 임금에 포함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국어 순화(다듬을 말과 다듬은 말)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부의하다'는 '토의에 부치다'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② [X] '명도하다'는 '내주다', '넘겨주다'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③ [O] '징구'는 '걷기', '거두기', '청구'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O] '산입하다'는 '포함하다', '셈에 넣다'로 순화해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8.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재 약 7,000개의 언어가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인간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대략 6만 년 전인데, 그동안 많은 언어가 분기하고 사멸하였다. 오늘날의 모든 언어는 나름대로 특별한 역사를 갖는다.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또한 '피진(pidgin)'과 같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도 있는데,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는 자연스럽게 '크리올(creole)'과 같은 새로운 언어를 탄생시키기도 한다. 피진과 크리올은 비교적 근래에 형성된 것이므로 그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대의 언어들이 명멸하는 과정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
>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부른다. 과거에 서양에서는 그리스어나 라틴어가, 동양에서는 한자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미디어나 교통수단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의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는 영어가 과거의 국제 통용어들보다 훨씬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① 교류와 소통이 증가하면 언어의 분기와 사멸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②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서양의 다른 언어보다 발음, 규칙, 의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③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될 수 있다.
④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X]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교류와 소통의 증가는 2문단에서 국제 통용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배경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② [X]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2문단에서 서양의 링구아 프랑카의 예시로 들고 있을 뿐입니다.

③ [O] 2문단의 '언어 중에는 영어와 같이 국제적으로 세력을 얻어 글로벌 시대에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어도 있다. 이러한 언어들을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라고 부른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 [X]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한 것은 1문단의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개별 언어들은 발음과 규칙, 그리고 의미의 세밀한 변화를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다.'의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진에서 크리올로 변화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진(pidgin)'은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급조된 언어이고, 이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후대가 만든 언어가 '크리올(creole)'입니다.
※ 피진/크리올 [pidgin/creole]: 언어학에서는 피진어와 크리올어를 술어로서 구별하고 식민지의 플렌테이션에서 일하는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가 다른 모국어를 별도로 가지면서 자신들간이나 지배자간의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배자 언어의 문법이나 발음을 일정의 규칙에 기초하여 간략화한 것을 피진어라고 하고, 그 피진어를 모국어로 하는 제2 세대 이후가 보다 풍부한 표현까지 가능한 언어로서 발전시킨 것을 크리올어라고 한다.

문 9. ㉠ ~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식용유	㉡ 헛걸음
㉢ 안팎일	㉣ 입학생

① ㉠과 ㉢은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난다.
② ㉠과 ㉣은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
③ ㉡과 ㉢은 각각 음운의 대치가 나타난다.
④ ㉡과 ㉣은 같은 유형의 음운 변동이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운의 변동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 '식용유[시굥뉴]'에서는 '식용'과 '유' 사이에 'ㄴ' 음이 첨가되고, ㉢의 '안팎일[안팡닐]'에서는 '안팎'과 '일' 사이에 'ㄴ' 음이 첨가됩니다. 따라서 각각 음운의 첨가가 나타납니다.
② [X] ㉠ '식용유[시굥뉴]'의 음운 변동 전의 음운의 개수는 'ㅅ, ㅣ, ㅇ, ㅛ, ㅇ, ㅠ'로 6개이고,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는 'ㅅ, ㅣ, ㅇ, ㅛ, ㅇ, ㄴ, ㅠ'로 7개입니다.
㉣ '입학생[이팍쌩]'의 음운 변동 전의 음운의 개수는 'ㅣ, ㅂ, ㅎ, ㅏ, ㄱ, ㅅ, ㅐ, ㅇ'로 8개이고, 음운 변동 후 음운의 개수는 'ㅣ, ㅍ, ㅏ, ㄱ, ㅆ, ㅐ, ㅇ'으로 7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음운 변동 전과 후의 음운 개수가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③ [O] ㉡ '헛걸음[헏꺼름]'에서는 '헛'의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는 대치(음절의 끝소리 규칙)와 둘째 음절의 초성 'ㄱ'이 'ㄲ'으로 바뀌는 대치(된소리되기)가 나타납니다. ㉢ '안팎일[안팡닐]'에서는 '안팎'의 받침 'ㄲ'이 대표음 'ㄱ'으로 바뀌는 대치(음절의 끝소리 규칙)와 이어서 뒤에 첨가된 'ㄴ'에 의해 비음화되는 대치가 일어납니다. 각각 음운의 대치가 나타납니다.
④ [O] ㉡ '헛걸음[헏꺼름]'에서는 '헛'의 받침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는 대치(음절의 끝소리 규칙)와 둘째 음절의 초성 'ㄱ'이 'ㄲ'으로 바뀌는 대치(된소리되기)가 나타납니다. ㉣ '입학생[이팍쌩]'에서 '입학'은 받침 'ㅂ'과 뒤 음절 'ㅎ'이 만나 'ㅍ'으로 축약되어 [이팍]으로 발음됩니다. 또한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예사소리는 예외없이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입학[이팍]'과 '생' 사이에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이팍쌩]으로 발음합니다. 두 단어 모두 같은 유형(대치)의 음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문 10. 밑줄 친 단어가 바르게 쓰인 것은?

① 그는 평생 <u>호의호식</u>을 하며 지냈다.
② 그는 <u>환골탈퇴</u>의 자세로 새 일에 임했다.
③ 부모님은 <u>주야장창</u>으로 자식 걱정뿐이다.
④ <u>산수갑산</u>을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은 꼭 하고 싶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준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호의호식(好衣好食):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음.
② [X] 환골탈퇴 → 환골탈태(換骨奪胎): 「1」뼈대를 바꾸어 끼고 태를 바꾸어 쓴다는 뜻으로, 고인의 시문의 형식을 바꾸어서 그 짜임새와 수법이 먼저 것보다 잘되게 함을 이르는 말 ≒탈태. 「2」사람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하여 전혀 딴사람처럼 됨. ≒탈태, 환골, 환탈.
③ [X] 주야장창 → 주야장천(晝夜長川):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장천.
④ [X] 산수갑산 → 삼수갑산(三水甲山):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을 합친 말로, 조선 시대 귀양지의 하나였다.

문 11. 밑줄 친 어구와 같은 뜻의 한자 성어는?

> 이생(李生)은 그 이후로 인간사에 게을러져 친척과 빈객의 길흉사가 있어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늘 아내 최씨(崔氏)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u>사이좋게 지냈다</u>.
> – 김시습, 「이생규장전(李生窺墻傳)」에서 –

① 琴瑟相和 ② 女必從夫
③ 談笑自若 ④ 男負女戴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琴瑟相和(금슬상화: 거문고 금, 큰 거문고 슬, 서로 상, 화목할 화) 금(琴)과 슬(瑟)이 합주하여 화음(和音)이 조화되는 것같이 부부 사이가 다정하고 화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X] 女必從夫(여필종부: 계집 여, 반드시 필, 좇을 종, 남편 부)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말.
③ [X] 談笑自若(담소자약: 말씀 담, 웃을 소, 스스로 자, 같을 약) 근심이나 놀라운 일을 당하였을 때도 보통 때와 같이 웃고 이야기함.
④ [X] 男負女戴(남부여대: 사내 남, 짐질 부, 계집 여, 일 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문 12.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제목: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 1. 국가적 측면: [㉠]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다.
> 2. 개인적 측면
> (1) [㉡] 때문에 개인 컴퓨터의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미흡하다.
> (2) [㉢]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 3. 기술적 측면: [㉣] 때문에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

① ㉠: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② ㉡: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③ ㉢: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④ ㉣: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인터넷 범죄 처벌 규정의 제정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관련 규정이 신속하게 제정되지 않는 것은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중 국가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O] '인터넷 사용 시 백신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중 개인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O] '자신의 개인 정보는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개인 신상 정보 취급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인터넷 범죄 증가의 원인 중 개인적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X] '컴퓨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는 기술적 측면에서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 13.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금융 회사와 은행 상당수가 파랑을 상징색으로 쓰고 있다.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잘 어울린다.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색을 생각해 보라.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
>
> 파랑은 기업의 단체복에 자주 사용한다. 약간 어두운 톤의 파란색은 친근하고 진지하며 품위 있는 분위기를 전달한다. 어두운 파란색 단체복은 약간의 보수성과 전통을, 밝은 파란색 단체복은 친근한 소통과 창의적인 사고를 표현한다. 이 색은 교복에도 적합하다. 톤을 잘 선택하면 파랑은 집중에 도움을 주고 차분하게 해 주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

①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봐야 한다.
③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④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1문단의 '파랑을 사용한 브랜드는 친근성과 전문성이 높아 보인다'를 통해, 브랜드의 로고를 만들 때 색이 주는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② [X] 1문단의 '또한 파랑은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선호하는 색이다. 파랑은 소통의 색으로서 소셜 미디어와 잘 어울린다.'를 통해,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브랜드에 파란색을 써서 성공한 것은 우연한 선택의 결과로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1문단의 '파랑의 긍정적 속성에는 정직과 신뢰가 있다', '파랑을 상징색으로 사용한 브랜드가 파랑의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차갑고 불친절하고 무심한 느낌의 부정적인 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를 통해 색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색이 주는 긍정적 속성을 잘 파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2문단의 '톤을 잘 선택하면 파랑은 집중에 도움을 주고 차분하게 해 주며 활발한 토론과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를 통해 색의 톤에 따라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니, 인테리어에 쓸 때 파랑이 지닌 다양한 톤을 알아봐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4. 다음 발화에 나타난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순화된 신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좌창(痤瘡)'이라는 의학 용어를 대체한 '여드름'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도 신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신어는 전문 용어의 순화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어의 영역은 대중이 생산하는 '자연 발생적 신어'의 영역과 더불어 '인위적인 신어'의 영역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① 신어에서 비속어나 은어가 빠져야 한다.
② 신어는 연구 대상과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③ 자연 발생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④ 신어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위해 그 범주를 특정해야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의도·견해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제시문에는 '신어(新語)에 대해 말할 때, 보통 유행어나 비속어, 은어와 같은 한정된 대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로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② [O] 제시문의 '이는 신어 연구가 단지 새로운 어휘와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연구를 넘어서 한국어 조어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X] 제시문의 '특히, 상당수의 전문 용어는 신어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를 통해 자연 발생적인 신어가 아닌 전문 용어(인위적인 신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제시문의 '그런데 신어 연구의 대상은 특정한 범주의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통해 잘못된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5. 다음 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열 두 째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ᄒᆞ다. 옥창(玉窓)에 심ᄀᆞᆫ 매화(梅花) 몃 번이나 픠여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업다. 가을 ᄃᆞᆯ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 업시 헴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ᄒᆞ여 어이 ᄒᆞ리. 청등(靑燈)을 돌라 노코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ᄎᆞ 섯거 타니, 소상(瀟湘) 야우(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ᄃᆞᆺ, 화표(華表) 천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ᄃᆞᆺ,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녯 소래 잇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ᄒᆞ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야 구븨구븨 ᄭᅳᆫ쳐서라. 출하리 잠을 드러 ᄭᅮᆷ의나 보려 ᄒᆞ니, 바람의 디는 닢과 풀 속에 우는 즘생, 므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ᄭᆡ오ᄂᆞᆫ다.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ᄉᆞᆫ 약수(弱水) 가렷관ᄃᆡ,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ᄆᆞᆫ쳣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가신 ᄃᆡ 바라보니, 초로(草露)ᄂᆞᆫ 맷쳐 잇고 모운(暮雲)이 디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고ᄃᆡ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룬 사람 수업다 ᄒᆞ려니와, 박명(薄命)ᄒᆞᆫ 홍안(紅顔)이야 날 가ᄐᆞ니 ᄯᅩ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ᄒᆞ여라.
>
> —「규원가(閨怨歌)」에서 —

① 시간 변화를 통해 슬픔과 기쁨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②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심정을 자연물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다.
③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의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다.
④ 운명에 순응하여 힘든 결혼 생활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가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규원가〉는 조선 중기에 허난설헌이 지은 규방 가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속절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늙어 가는 여인의 애처로운 정한(情恨)을 노래하였습니다. 일설에는 허균의 첩인 무옥이 지었다고도 합니다. ≒원부가, 원부사.
① [X] 제시문의 '열 두 째 김도 길샤 설흔 날 지리(支離)ᄒᆞ다. 옥창(玉窓)에 심ᄀᆞᆫ 매화(梅花) 몃 번이나 픠여진고.(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를 통해 시간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슬픔과 한만 드러날 뿐, 기쁨의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② [O] '가을 ᄃᆞᆯ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죽림(竹林) 푸른 고ᄃᆡ 새 소리 더욱 설다.(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는 더욱 슬프게 들리는구나)'를 통해 화자가 자신의 외로운 상황과 슬픔을 자연물(귀뚜라미, 새소리)에 의탁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화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속절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늙어 가는 자신의 애처로운 정한(情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억압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 원인을 연인과의 이별에서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④ [X] 화자는 '박명(薄命)ᄒᆞᆫ 홍안(紅顔)이야 날 가ᄐᆞ니 ᄯᅩ 이실가.(복이 없고 팔자 사나운 젊은 여자 나 같은 사람 또 있겠는가)'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운명에 순응하여 현실을 견뎌 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현대어 풀이]

>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이 지리하다. 규방 앞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국 눈 섞어 내리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가? 봄날 온갖 꽃 피고 버들잎이 돋아나는 좋은 시절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다. 가을 달 방에 들이 비추고 귀뚜라미 침상에서 울 때 긴 한숨 흘리는 눈물 헛되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
> 돌이켜 여러가지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니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등불을 돌려 놓고 푸른 거문고를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곡을 시름에 싸여 타니, 소상강 밤비에 댓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망주석에 천 년만에 찾아 온 특별한 학이 울고 있는 듯,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솜씨는 옛 가락이 아직 남아 있지마는 연꽃 무늬가 있는 휘장을 친 방이 텅 비었으니 누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 마음 속이 굽이굽이 끊어졌도다 .
>
>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님을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서 우는 벌레는 무슨 일이 원수가 되어 잠마저 깨우는고? 하늘의 견우성과 직녀성은 은하수가 막혔을지라도 칠월 칠석 일년에 한 번 씩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장애물이 가리었기에 오고 가는 소식마저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어 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풀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이 지나갈 때 대 수풀 우거진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세상에 설운 사람 많다고 하려니와 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 헌법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명시적으로 개별적인 기본권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
>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 이런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규율하는 공동체 질서 내에서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존속, 안전, 평화, 그리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도 이러한 범위에서 제한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가치들이 있기만 하면 국민의 자유가 마음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가치에 의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① 인간의 자유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② 헌법 제37조 제1항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서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③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한다.
④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므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2문단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O] 1문단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될 자유도 헌법상 보장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1항에 ~ 정함으로써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O] 3문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2문단의 '그런데 자유는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를 통해 선지의 앞부분의 내용은 옳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문단의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를 통해 선지의 뒷부분의 내용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7. ㉠ ~ ㉣의 문맥적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뭇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 난간 열두 층계 위에 이제 ㉠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
>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리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
> 길숨한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남긴 푸른 도포 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에 절로 입술이 푸르러 감을 어찌합니까?
>
>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슨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
>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 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
> – 조지훈, 「석문」 –

① ㉠: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
② ㉡: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
③ ㉢: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
④ ㉣: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어의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조지훈의 〈석문〉입니다. 이 시는 조지훈의 고향인 경북 영양의 일월산 황씨 부인 사당 설화를 소재로 하여 버림받은 신부의 한(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설화에 의하면 혼인 첫날 밤 신랑이 문에 비친 대나무 그림자를 보고 연적(戀敵)이 복수하러 온 것이라 오해하여 달아났으나, 신부는 신방에 앉아 기다리다가 죽었고, 나중에 신랑이 신부의 한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① [O] 1연에서 화자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열릴 돌문 안, 층계 위에 ㉠ '검푸른 이끼'가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끼'는 오랫동안 임이 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 '임에 대한 오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② [O] 2연에서 화자는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 '촛불 한 자루'를 간직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임에 대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4연에서 화자는 당신의 따슨 손길이 저의 흰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 '기약할 수 없는 임에 대한 체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O] 5연에서는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도 ㉣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오랜 세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 (중략) …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톱밥 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
>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 보곤 했었다. … (중략) …
>
> 대학생에겐 삶은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스물넷의 나이인 그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내력을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삶은 잠이다. 마취 상태에 빠져 흘려보내는 시간일 뿐이라고 청년은 믿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부터 그런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있다.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 끓어오르는 그들의 신념과는 아랑곳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 밖의 질서 …… 그런 것들이 자꾸만 청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 – 임철우, 「사평역」에서 –

①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②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없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④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임철우의 〈사평역〉은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1981)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의 한적한 시골 역사(驛舍)인 사평역을 배경으로 막차를 기다리는 익명의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액자식으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쓸쓸하고 퇴락한 간이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아홉 사람들은, 당대 시대와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회상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1970~1980년대 산업화의 이면에 묻혀 버린 소외된 사람들의 쓸쓸한 내면풍경을 서정적 문체로 아름답게 그려 내고 있습니다.
① [O]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는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난 '사내'와, '유치장에서 보낸 한 달 남짓한 기억과 퇴학'을 통해 현실 속에서 혼란을 느끼는 '청년'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과거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② [O] 제시된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주로 '사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③ [O]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톱밥난로가 놓여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를 통해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제시된 부분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 19. ㉠과 ㉡에 대한 진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술이 ㉡ 과학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설명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 특히 낭만적인 예술가들은 예술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표현에 있다고 보고, 예술의 기능이 과학의 기능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의 목적이 진리를 밝히는 데 있으며, 그들의 언어가 갖는 의미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에서 찾아진다는 것이다.
>
> 그러나 예술의 언어가 과학의 언어처럼 지시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예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라는 여인을 모델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지시하고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예술 작품은 실재 인물과 상관없이 표현의 결과물로서 존재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은 의미를 갖는 언어 뭉치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① ㉠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다.
②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③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다.
④ ㉠과 ㉡을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진술 방식 및 전개 방식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에 대한 예시로 모나리자를 들고 있습니다.
② [O] 1문단의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이다.'를 통해 ㉠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③ [O] 1문단의 '과학이나 예술은 다 같이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물 현상에 질서를 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로 보아 ㉠과 ㉡의 공통점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과 ㉡을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 20. ㉠과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대중예술'이라는 용어는 다소 모호하게 사용된다. 이 용어는 19세기부터 쓰였고, 오늘날에는 대중매체 예술뿐 아니라 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에도 적용된다. 이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의문은, 예술이란 용어 자체가 이미 고유한 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며 범주상의 오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논쟁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위계적 이분법 아래에 예술 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립이 존재함을 알려 준다.
>
> 대중예술과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문화와 대비하여 저급한 것으로 널리 규정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대중예술에 관한 이론은 대개 두 입장 사이에 놓인다. ㉠ 첫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두 번째 입장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와 동떨어진 영역, 즉 고급 문화에 도전함으로써 대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자율적 규칙, 가치, 원리와 미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
> 첫 번째 입장은 다양한 가치를 이상적인 진리 안에 종속시킴으로써, 예술의 형식과 즐거움의 미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상대적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고급 예술이 대중예술에 대하여 휘두르고 있는 오래된 헤게모니의 흔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① ㉠은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위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③ ㉡은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④ ㉡은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에 대해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의 독자성을 강조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의도·견해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X] ㉠은 '엔터테인먼트를 고급 문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종속되며 그것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고급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간의 위계성을 인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위계성: 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이 존재하는 성질.
② [O] ㉠은 '엔터테인먼트가 고급 문화를 차용해서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고급 예술과 고급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3문단의 '두 번째 입장은 ~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 [O] 3문단의 '두 번째 입장은 대중예술에 대한 극단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를 통해 ㉡은 대중예술과 엔터테인먼트는 고급 예술,고급 문화와 다른 독자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